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8월 본격 시행

기초생활제도보다 소득기준 완화 4인 가구 40만7000원 지원 복지사각지대 1000여 세대 혜택

광주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법과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24일 “법과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을 전액 시비로 마련해 1000여 세대에 대해 8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135만5000원), 재산기

준 54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재산 등 가구규모별 차등 적용 등에 의해 수혜자가 결정된다. 지원 범위는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광범위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2000원, 2인 가구 85만4000원, 3인 가구 110만5000원, 4인 가구 135만6000원, 5인 가구 160만6000원이다.

하지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180만7000원), 재산기준은 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3억원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해 수혜 범위를 늘렸다. 지원 범위 역시 생계급여로 한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1000원, 2인 가구 25만6000원, 3인 가구 33만1000원, 4인 가구 40만7000원, 5인 가구 48만2000원으로 정했다.

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업 안내 지침 마련 등을 마쳤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했다.

앞으로 3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을 마친 후 8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저 또는 제외계층 ‘광주형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비 대상자들을 선정해줄 것을 5개 자치구에 요청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초의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의 복지시책에서 소외된 지역 영세민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시행 후에도 지원의 질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계속해서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 좋은 일자리 여기 있어요 광주시는 2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상설전시장에서 광주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내일(JOB)을 잡는 중소기업 위크’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하이코리아, (주)씨엠텍, (주)금호에이치티 등 광주지역 20개사가 참여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하고, 전문상담사의 구직상담 등 취업클리닉,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미니취업박람회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광주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업체를 발굴·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5차례 개최해 167명이 채용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24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2018년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하며,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

차량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제인 및 공매처분한다. 노후 차량초과 자동차로 환가가 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 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09억원에 달해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안전 중심 조직 개편으로 시민 신뢰”

취임 1년 김성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기술용역·임대사업 다양한 수익 어촌 1사1촌 협약 사회환원 노력



광주시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기술력 기반의 사업 등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 총력을 다해 6억여원의 철도기술 용역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고, 환승 주차장 임대를 통한 2억여원

“오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의 창의적인 조직 구현에 앞장선 한 해였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호(사진) 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김 사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함께 하는 광주도시철도’를 목표로 해 도시철도 2호선 준비, 안전성 강화, 전남 어촌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철도청,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에서 40여년간 경력을 쌓아온 관련 분야 전문가로, 공사 발전의 적임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용산차량기지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신뢰받는 안전 도시철도’를 제1의 경영과제로 삼은 뒤 기존의 안전관리팀을 안전관리실로 격상시키고 시장 직속 조직으로 했다.

안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은 2017 중앙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그룹 선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재인증 획득, 철도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역인재 채용, 지역업체 성과공유제 등 공공의 이익과 지속가능 공동체 발전에도 힘썼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무안 구로어촌계와 1사1촌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의 신규 수익을 확보했다.

제안 심의회, 시민참여 경영 확대, 공사 최초 여성팀장 및 역장 임용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등 조직융합을 위한 공감 경영을 펼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앞두고 2호선 시스템 완벽 구축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하에 시스템 엔지니어링(SE) 기술혁신 등도 직접 챙기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도 3년 연속 지방공사 중 1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 공공부문 열린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등 대외적 성과도 줄을 이었다. 김 사장은 “앞으로 2022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행으로 혁신 성장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드론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

광주시농기센터, 벼 재배 시연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24일 오후 광산구 송산동 일원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범시 파종과 병해충 방제, 동력승용 점파기를 활용한 무논파종 등 직파재배기술과 농업용 무인보트를 활용한 방제도 선보였다.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 설치와 이앙 모내기 과정이 없어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특히 병해충 방제 시 하루 최대 50ha의 대규모 방제가 가능하고 1회 0.5ha의 농작물을 10분 정도면 살포할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4개 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있다.

또 첨단 농업 기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예산 10억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농업인 드론 지원 사업, 임대 사업 활용 및 농업방제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역량 강화

(제)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은 지난 23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층 대강의실에서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육교원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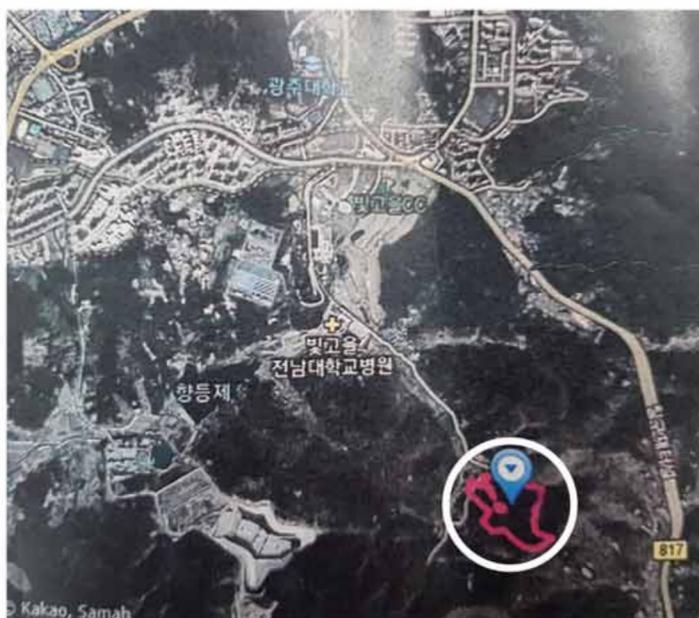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능력과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문해교육교원 보수 교육은 교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미정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문민정음의 이해’, 조경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문해교사가 알아야 할 한글 맞춤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강의 노하우나 문해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시간을 가졌다.

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광역문해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초·중·고 문해교육교원 양성과정 및 교원보수교육, 문해의 달 기행행사, 야학교육 공모사업, 문해교육교원 파견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0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최고 투자물건 입니다※